

# “잘 데려왔네”... 활약 돋보이는 ‘이적생’은 누구

이주형, 키움 이적 후 타율 0.367 OPS 1.106 ‘불방망이’  
‘트레이드’ 삼성 류지혁·KIA 김태군도 제 역할 특출

시즌 도중 새로운 소속팀에 합류해 빠르게 녹아든 이적생들. 이번 시즌 그들의 활약상이 눈길을 끈다.

키움 히어로즈는 지난달 29일 빅딜 버튼을 눌렀다. LG 트윈스에 투수 최원태를 내주고 야수 이주형, 투수 김동규, 2024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아오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이적 당시 주축 선발투수를 내주는 대신 유망주들과 신인 지명권을 받아온 만큼 팀의 미래를 위한 트레이드인 것처럼 보였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다. 키움은 이주형에게 선발 출전을 보장하며 꾸준히 기회를 주고 있다.

벌써 대박 조짐이 보인다. 이주형은 키움 이적 후 8경기에서 타율 0.367 2홈런 6타점 OPS(출루율+장타율) 1.106 불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

심상치 않은 타격감을 뽐낸 이주형은 최근 4경기에서 5번 타자로 출전에 클린업트리오의 한 축을 담당했다.

홍원기 키움 감독은 이주형에 대해 “타격과 수비 모두 기대 이상”이라며 “계속 잘 할 것이고, 경험을 쌓으면 한 단계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달 5일 트레이드를 통해 내야 유틸리티 류지혁을 영입했다. 공수 양면에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줄 수 있는 카드였다.

류지혁은 팀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삼

성 유니폼을 입고 뒀 21경기에서 타율 0.289 1홈런 16타점 5도루 OPS 0.689를 기록했다. KIA 시절에 비해 타율과 장타율이 올랐다.

삼성 합류 후 초반에는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타격감은 팀 내에서 가장 뜨겁다. 8월 6경기에서 타율 0.611 9타점 맹활약을 펼쳤다.

수비에서도 가치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류지혁은 1루와 3루 수비를 겸하며 내야에 안정감을 더하고 있다.

LG는 트레이드로 최원태를 데려오며 선발진 강화에 성공했다. 최원태는 올해 키움에서 17경기 6승 4패 평균자책점 3.25의 호성적을 거둔 검증된 자원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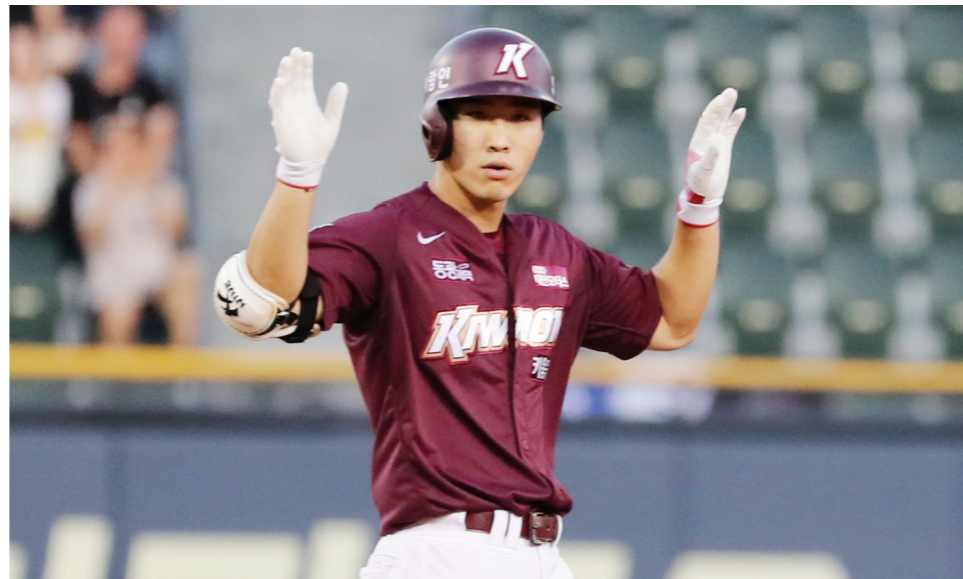
최원태는 LG 데뷔전이었던 지난달 30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에서 6이닝 2피안타 무사사구 5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진가를 발휘했다.

비록 지난 5일 대구 삼성전에서 5이닝 9피안타(1홈런) 6실점 난조를 보였지만, 이후 경기에서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량을 갖추고 있다.

KIA 또한 트레이드로 베테랑 포수 김태군을 품으며 약점을 지웠다. 안정적인 수비력, 투수 리드, 준수한 타격 능력을 보유한 김태군은 KIA에서 곧바로 주전 포수 마스크를 썼다.

KIA는 영입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김태군이 팀에 합류한 후 14승1무5패의 뛰어난 성적을 냈다.

지난 5월 트레이드로 KT 위즈 유니폼을



입은 내야수 이호연도 복덩이다. 44경기에 출전해 타율 0.307 3홈런 14타점 5도루 OPS 0.743을 기록했다. 선발과 교체 출전을 오가

면서도 타격에서 3할 이상을 쳐주며 제 몫을 충실히 해주고 있다. 뉴스스



전지원은 7일(한국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프렌치 릭의 피트 다이 코스(파71)에서 열린 프렌치 릭 리조트 캐리티 클래식(총상금 33만5000달러) 4라운드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LPGA 제공)

## 전지원, LPGA 2부투어서 시즌 2승...1부 시드 보인다

전지원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2부 투어인 엡스 투어에서 시즌 2승째를 수확했다.

전지원은 7일(한국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프렌치 릭의 피트 다이 코스(파71)에서 열린 프렌치 릭 리조트 캐리티 클래식(총상금 33만5000달러)에서 최종합계 15언더파 273타를 기록해 1위에 올랐다.

지난 5월 이노바 미션 인 리조트 앤 클럽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던 전지원은 두 번째 우승을 거머쥐어 더욱 안정적인 시즌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우상상금으로 5만2500달러(약 6500만원)를 받은 전지원은 올해 총상금 10만7403달러(약 1억4000만원)로 상금랭킹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엡스 투어 상금랭킹 3위 이내의 선수들은 다음 시즌 LPGA 투어 시드권을 받는다.

전지원은 “오늘 경기에 들어서면서 느낌이 좋았다. 바람이 조금 까다로웠고, 거리를 맞추기 어려웠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았다. 확실하게 다음 대회에 나가면 자신감을 얻게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금 랭킹 3위로 올라선 것에 대해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지난달부터 이번 대회 우승에 대해 생각해왔다. 열심히 준비해서 결과가 잘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스

## 투타 살아난 NC·KT 약진 무섭네...두산은 주춤

### 주간 야구전망대

### 3연승 KIA, NC에 2경기차 8연패 키움 꼴찌 추락 위기

NC 다이노스와 KT 위즈가 무서운 집중력을 보여주며 상위권 구단을 압박하고 있다.

NC는 지난주(8월1일~6일) 5승 1패의 성적을 올렸다.

시즌 48승 1무 43패를 기록한 NC는 3위로 도약했다. 2위 SSG 랜더스(52승 1무 39패)와

의 승차는 4경기다.

NC는 지난주 3할이 훌쩍 넘는 팀 타율을 기록했다. 박건우와 함께 권희동, 손아섭이 타선을 이끌었다. 지난주 평균 6점 이상을 기록하며 최근 4연승을 질주했다.

NC는 8일부터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SSG와 3연전을 치른다. 경기 결과에 따라 승차를 크게 좁힐 수도 있다. NC는 올해 SSG와의 상대전적에서 6승 2패로 강했다.

오는 9일부터는 NC와 KT가 자웅을 겨룬다. KT(49승 2무 44패)는 고영표, 엄상백, 윌리엄 쿠에바스 등 선발진의 활약을 앞세워 4위로 올라섰다.

특히 고영표는 지난주 2경기(15이닝)에서 2승 평균자책점 0.60을 기록했다. 쿠에바스와 엄상백, 배제성은 잔물 야구로 승리의 주역이었다.

KT 황재균은 지난주 4차례나 결승타를 날리는 등 베테랑의 진가를 발휘했다.

KT는 안정감 있는 선발진을 앞세워 이번 주에도 높은 승률을 노린다.

두산 베어스는 지난주 3승 3패로 주춤해 5위로 하락했다. 두산은 최근 11경기에서 3승 8패로 부진했다.

두산은 최근 마운드가 흔들리고, 타선이 침체되면서 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타선에는 김재호를 제외하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타자가 없다.

두산(47승 1무 44패)은 현재 5위에 있지만,

6위 KIA 타이거즈(44승 2무 43패)의 추격을 받고 있다.

위기의 두산은 이번 주 삼성 라이온즈, 한화 이글스 등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

KIA는 최근 3연승을 달리며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6위 KIA와 3위 NC의 승차는 2경기에 불과하다.

KIA는 최근 타격감이 좋은 나성범과 이우성, 김선빈을 앞세워 연승에 도전한다.

최원태와 이정후 등 투타 동력을 잃은 9위 키움 히어로즈(41승 3무 57패)는 최근 8연패의 수렁에 빠져 최하위 추락을 눈앞에 뒀다.

키움은 반등할 여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가장 힘든 후반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뉴스스



안병훈이 6일(현지시간)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의 세지필드 CC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윈덤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9번 홀에서 침착하고 있다. 안병훈은 최종 합계 18언더파 262타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 PO 진출 확정 안병훈 “올해 투어 챔피언십 꼭 출전”

안병훈이 생애 처음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 출전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안병훈은 7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의 세지필드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2개를 쳐 3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8언더파 262타를 친 안병훈은 러셀 헨리(미국)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안병훈은 PGA 투어 데뷔 후 첫 우승을 노렸지만, 격차를 좁히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안병훈은 준우승만 4차례나 기록했다.

안병훈은 페덱스컵 랭킹 37위에 올라 상위 70위까지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다.

오는 11일부터 플레이오프 1차전 페덱스 세인트루드 챔피언십이 열리며 상위 50명이 출전하는 2차전 BMW 챔피언십, 최고의 선수 30명이 출전하는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이 차례로 개최된다.

안병훈은 “우승을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공동 2위도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만족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한 주인 것 같다. 플레이오프 전에 좋은 성적과 감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플레이오프 출사표도 전했다.

안병훈은 “올해는 꼭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오늘같은 감이론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플레이오프 때 잘 하겠다”고 다짐했다.



## 조규성, 덴마크리그 3경기 연속 득점포 가동

덴마크 프로축구 미트윌란에서 뛰는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조규성이 개막 후 3경기 연속 골을 터뜨렸다.

미트윌란은 7일(한국시간) 덴마크 링베 스타디온에서 열린 2023-2024시즌 덴마크 프로축구 수페르리가 3라운드 링베와의 원정경기에서 1-4로 패배했다.

후반 36분 교체 출전한 조규성은 팀이 0-4로 뒤진 후반 추가시간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달 비도브레와의 개막전에서 골을 넣은

조규성은 7월 30일 2라운드 실케보르전에 이어 이날까지 리그 3경기에서 모두 득점포를 가동했다. 미트윌란은 전반 6분 한 명이 퇴장당하는 수적 열세 속에 대패를 당해 리그 개막 후 3연승에 실패했지만, 조규성의 골로 위안을 삼았다. 리그에서 3골을 넣은 조규성은 득점 부문 공동 3위를 달렸다.

미트윌란은 11일 오모니아(키프로스)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UECL) 3차 예선 1차전을 치른다.

전북 여자 배드민턴 간판인 공희용(전북은행)이 세계무대를 호령하고 있다.

7일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최근 호주에서 ‘2023 호주오픈 배드민턴 월드투어 슈퍼500 대회’에서 공희용이 여자복식 정상에 또다시 우뚝, 전북 배드민턴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번 우승으로 공희용은 지난주에 펼쳐진 일본오픈 우승에 이어 2주 만에 또다시 우승컵을 들어 올린 쾌거를 이뤘고, 올해에만 국제대회에서 4번째 우승을 기록하게 됐다.

현재 여자복식 세계랭킹 3위로 알려지고 있는 공희용-김소영(인천국제공항)조는 공격과



수비 조합이 윗등 하는 등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 전북 배드민턴 공희용, 일본 이어 호주오픈 여복도 우승

## ‘삐약이’ 신유빈, 리마대회 정상...올해 2번째 단식 우승

한국 여자탁구 애시스 신유빈(19·대한항공)이 올해 2번째로 국제대회 여자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단식 세계 9위 신유빈은 7일 오전(한국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2023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컨텐더 리마 대회 여자단식 결승에서 세계 16위 베르나데트 쇠츠(루마니아)를

4-1(9-11 11-9 11-9 11-8 11-7)로 이겼다.

이로써 신유빈은 올해 2번째 국제대회 여자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신유빈은 지난 6월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열린 WTT 컨텐더 라고스 대회에서 여자단식과 복식 우승을 거둔 바 있다.

뉴스스